

청년층 선호직업 무조건 '공무원'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결과 직업 선택 요인

“수입과 안정성”...30대부터 ‘적성’ 후순위

청년층(13~29세)이 선호하는 직업은 국가기관·공기업·대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인기가 빠르게 높아지는 반면 민간기업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있다. 통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사회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직장

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는 △국가기관 22.8% △공기업 21.7% △대기업 17.4%였다. 공무원(국가기관) 선호도는 2009년 28.6% 이후 장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신 공기업 선호도가 2009년 17.6%에서 장기적 상승세를 보였다.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2009년 17.1%에서 2011년

21.6%로 2위까지 올랐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여 다시 3위로 떨어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공기업(22.4%)·공무원(21.7%)·대기업(19.2%) 순이고 여성은 공무원(24.0%)·공기업(20.9%)·대기업(15.6%) 순이다. 어느쪽 성별이든 대기업은 공기업·공무원의 후순위에 머물렀다. 연령대로 보면 중학생 이하에서 대기업에 대한 선호가 27.8%로 가장 높았다. 이후 고등학생 사이에서는 대기업 선호도가 18.7%로 2위로 떨어지고, 대학생들 사이에

서는 17.9%로 3순위가 된다. 보고서는 직업 선택 요인 조사 결과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수입(38.8%)과 안정성(25.6%)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성에 대한 고려는 13~19세에는 19.7%로 적성·흥미(30.2%)보다 한참 낮지만 20~29세에 들어서는 23.2%로 높아져 적성·흥미(23.6%)와 대등해진다. 이후 30대부터는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적성·흥미에 대한 고려를 한참 앞선다.

할리스, 커피전문점 종합만족도 1위

스타벅스, 맛·서비스 최상위지만...편의성·가격 최하위권

할리스 커피가 스타벅스를 제치고 호감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커피전문점으로 뽑혔다. 커피의 맛과 매장 접근성은 물론 가격·부가혜택·소비자 호감도 부문에서 모두 상위 점수를 받아 소비자 종합만족도 1위에 올랐다.

커피전문점 서비스 소비자만족도 (단위: 점/5점 척도)

구분	종합 만족도	서비스 품질	상품 특성				오감도
			가격	접근성	편의성	부가혜택	
할리스커피	3.95	3.99	3.88	4.09	3.99	3.46	3.85
스타벅스	3.93	4.12	3.94	4.23	3.65	3.23	3.78
엔제리너스	3.86	3.86	3.72	3.90	3.75	3.49	3.83
투썸플레이스	3.85	3.93	3.92	4.09	3.84	3.32	3.73
커피빈	3.84	3.91	3.74	3.78	3.74	3.22	3.80
이디야커피	3.80	3.83	3.57	3.96	3.72	3.62	3.75
평균	3.88	3.97	3.82	4.05	3.76	3.37	3.78

* 서비스 품질, 상품 특성, 오감도 3개 부문의 만족도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

자료 한국소비자원

◇종합만족도 1위 ‘할리스커피...’ 소비자 호감 가장 높아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4일부터 16일까지 국내 6대 커피전문점 이용자 1031명을 상대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할리스커피가 종합만족도 3.95점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6대 커피전문점의 평균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8점이었. 평균치를 넘긴 브랜드는 할리스와 스타벅스(2위·3.93점) 두 곳이었으며, △3위 엔제리너스(3.86점) △4위 투썸플레이스(3.85점) △5위 커피빈(3.84점) △6위 이디야커피(3.80점) 순이다.

조사 부문별로 보면 매장 시설과 소비자 대응 서비스 수준 등을 측정하는 ‘서비스 품질’은 스타벅스가 4.12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할리스커피가 3.99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투썸플레이스와 커피빈,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는 최고 3.93점에서 최저 3.83점을 받아 평균 점수(3.97점)를 밑돌았다.

◇맛·접근성 1위는 스타벅스...엔제리너스 ‘분위기’ 때문에 6위

‘상품 특성’ 부문의 종합 점수는 할리스커피가 3.9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투썸플레이스(3.94점) △스타벅스·엔제리너스(3.87점) △이디야커피(3.84점) △커피빈(3.82점)이 뒤를 이었다. 다만 ‘커피 맛과 품질’, ‘매장 접근성’, ‘매장 이용 편의성’, ‘가격·부가혜택’ 등 하위 항목에서는 각 브랜드의 순위가 조금씩 달라졌다.

먼저 ‘제품’ 항목에서는 스타벅스가 3.94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투썸플레이스가 3.92점을 받아 2순위에 올랐다. 할리스커피는 3.88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투썸플레이스와 엔제리너스는 모두 3.7점대를 받았으며 이디야커피는 3.5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매장 접근성 항목에서도 스타벅스가 4.23점으로 1위에 올랐다. 할리스커피와 투썸플레이스는 각각 4.09점을 받아 공동 2위를 기록했다. 하위권은 △이디야커피(3.9%) △엔제리너스(3.90점) △커피빈(3.78점)이 차지했다. 스타벅스와 할리스커피, 커피빈, 투썸플레이스는 ‘커피의 맛’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았으며 엔제리너스는 ‘분위기’, 이디야커피는 ‘가격경쟁력’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았다.

◇스타벅스, 편의성·가격은 최하위...아메리카노 적정가격 3055원

할리스커피와 스타벅스의 종합만족도 순위를 가른 영역은 ‘매장 편의성’과 ‘가격·부가혜택’이었다. 두 브랜드는 전 부문에서 나란히 상위 점수를 받으며 호감을 다졌지만, 스타벅스는 ‘매장 이용 편의성’과 ‘가격·부가혜택’ 항목에서는 최하위 수준인 6위, 5위를 기록해 점수가 낮아졌다.

소비자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5000원(23.2%)이 가장 많았고 6000원(20.7%)이 뒤를 이었다. 다만 소비자가 생각하는 아메리카노 적정가격은 3055원으로 모여졌다. 소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커피 1잔에 5000원 이상을 쓰고 있지만, 대다수가 현재의 커피값이 과도하게 높다고 느낀 셈이다.

뉴스1



쏘나타·팰리세이드·텔루라이드 ‘북미 올해의 차’ 최종후보

‘車업계오스카상’ 사상 첫 3개 차종 최종후보 등극...2년 연속 수상 기대

현대자동차의 쏘나타와 팰리세이드, 기아자동차의 텔루라이드가 자동차 업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북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올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2020 북미 올해의 차’ 최종 후보 리스트에 자사의 3개 차종이 이름을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승용부문에선 현대차의 쏘나타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부문에선 현대차의 팰리세이드와 기아차 텔루라이드가 각각 후보에 올랐다.

‘북미 올해의 차’ 최종 후보 리스트에 현대·기아차 3개 차종이 한꺼번에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북미 올해의 차’ 최종후보 리스트에 2009년 현대차 제네시스(BH), 2011년 현대차 쏘나타, 2012년 현대차 아반떼, 2015년 현대차 제네

시스(DH), 2017년 제네시스 G90, 2018년 기아차 스텔러, 2019년 제네시스 G70과 현대차 코나를 올린 바 있다.

그중 2009년 현대차 제네시스(BH), 2012년 현대차 아반떼, 2019년 제네시스 G70과 현대차 코나 등 총 4개 차종이 ‘북미 올해의 차’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현대·기아차 3개 차종이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지난해 G70과 코나에 이어 2년 연속 한국 자동차가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정 위원회는 해당 연도 6월에 ‘북미 올해의 차’ 대상 차종을 선정할 뒤, 다양한 테스트와 3차례의 투표 진행 등을 통해 연말 ‘올해의 차’에 오를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올해는 △승용부문에서 현대차 쏘나타를 비롯해 쉐보레 콜벡 스티어링, 토요타 수프리카 올랐

며, △SUV 부문에서 현대차 팰리세이드, 기아차 텔루라이드, 링컨 에비에이터가, △트럭 부문에서 포드 레인저, 지프 글래디에이터, 램 헤비듀티 등이 최종후보로 선정돼 경쟁을 펼친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최종 후보 발표로 판매 확대는 물론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북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판매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특히 기아차의 텔루라이드와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는 미국 평가기관과 유력 매체로부터 잇따라 호평을 받고 있다. 텔루라이드

는 최근 세계 최고 자동차 전문지로 꼽히는 미국 모터트렌드가 발표한 ‘2020년 올해의 SUV’에 선정된 데 이어 미국 자동차 전문평가 기관 KelleyBlueBook ‘2020 베스트 바이 어워드’에서 ‘베스트 뉴 모델’로 뽑힌 바 있다.

또 카앤드라이버가 발표한 대형 SUV 비교평가에서 텔루라이드와 팰리세이드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한편, ‘북미 올해의 차’는 자동차 업계 오스카상으로 불릴 만큼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는 지난 1994년 설립 이후 26년째 매년 그해 출시된 최고의 차를 선정하고 있다. 2020년 북미 올해의 차 최종 수상 차종은 내년 1월 디트로이트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1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광주, 대한민국! 최고의 중요도 광주 미래로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